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도시점 2026. 6. 22(월) 조간 < 2026. 6. 21.(일) 12:00 >

유망 로컬·수출 소상공인 발굴한다... '혁신 소상공인' 통합 선발

- 혁신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만 220개사 지원...경쟁률 15대 1 기록
- 1차 선발 1,250개사 대상 공개 오디션 개최(6.22.~6.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혁신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월)부터 6월 26일(금)까지 5일간 「2026년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을 개최한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로컬창업을 확산하고, 지역별 특색을 갖춘 핵심 점포를 육성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제13회 국무회의, 3.31)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오디션 대상 사업】

이번 통합 오디션은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로컬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 그리고 지역 핵심점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참여 기업을 선발한다.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로컬 기업을 선정해 역량진단, 컨설팅, 사업모델 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점포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선정 비율*을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강한소상공인 혁신 트랙(100개사)은 전국 단위의 경쟁력을 갖춘 성장기업 선발을 위해 제외

아울러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술 개발 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교육·제품개발·판로개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수출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을 육성한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혁신소상공인 통합 오디션 대상사업>

구 분	대상 사업	선발인원	비고
창업	■ 모두의 창업 (로컬분야)	1,000개사	■ 별도 추진
도약·R&D	■ 로컬창업 도약지원 사업	534개사	■ (초기) 최대 5천만원 (성숙) 최대 1억원 지원
	■ 창업성장R&D (소상공인 트랙)	50개 과제	■ 최대 2억원 지원
수출	■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100개사	■ 최대 1억원 지원

【통합 오디션 진행계획】

올해 통합 오디션는 총 10,220개사가 지원해 약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심층평가를 통해 오디션 참가 기업 1,25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 10,220개사 신청 (도약지원 9,422개사, 창업성장R&D 149개사, 글로벌 소상공인 649개사)

특히 이번 오디션 참가 기업 가운데 20·30대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이 42.5%를 차지해, 혁신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전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오디션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로컬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 로컬창업 도약지원 권역별 오디션 계획 >

권 역	기 간	장 소	권 역	기 간	장 소
수도권	6.23(화)~6.26(금)	판교 창업존	**동남권**	6.23(화)~6.26(금)	부산 e스포츠경기장
중부권	6.23(화)~6.26(금)	신불당아트센터	**강원권**	6.24(수)~6.26(금)	춘천 커먼즈필드
호남권	6.23(화)	광주 스테이지	**전북권**	6.23(화)~6.25(목)	제주 W360
대경권	6.23(화)~6.25(목)	대구 로컬창업타운	**제주권**	6.24(수)~6.25(목)	전북테크비즈센터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과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단위 통합 오디션으로 진행된다.

* (일정) 창업성장 R&D : 판교 창업존(6.23~6.26) / 글로벌 소상공인 : 판교 창업존(6.22~6.24)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초기기업에게 최대 5,000만 원, 성숙기업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 역시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창업성장 R&D(소상공인 트랙)」은 최종 선정된 50개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최근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는 로컬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창업부터 성장, 수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로컬 창업가를 지역 상권의 핵심 점포로 육성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책임자	과 장	김혜남	(044-204-729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양승헌 김명철	(044-204-7245) (044-204-728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